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5주일
제32권 33호(나해) 2012.7.15

[묵상]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전도 여행이
늘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습니다.
돼지 떼가 죽어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는 시작도 못하셨고
고향 나자렛에서는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견된
사도들에 대한 시선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적대자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늘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인간적인 대비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하느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됩니다.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저희들이
더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한 증거인 먼지로 인해
숨 막혀하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언제쯤 하느님의 영만으로 호흡하는
맑은 공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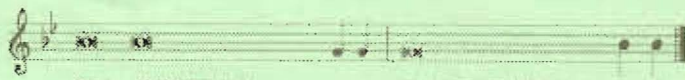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종환 야고보, 박석기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 이정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이준택, 이재로 아네스, 정정혜 레베카, 최금옥 말찌나, 고준희 제임스, 윤기출 마리아, 박종남 마리아, 김주일 미카엘 (생) 신대철 알베르토, 엄크리스 벨라도, 임준자, 유재형 요셉, 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 이지원 클라라 가정, 이광웅 요셉, 이종원 페드로 & 아네스 가정, 이종민 요셉, 신대진 페드로, 하늘의문pr 단원들, 오희섭, 오세호 레이몬드, 홍석인 체칠리아, 문 바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아모스 예언서(the Prophet Amos) 7,12-15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의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3-14<또는 1,3-10>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르코(Mark) 6,7-13

영성제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입금니,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6	215	215
봉헌	269	265	268
성체	281	298	287
파전	239	195	17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경의 근본주의적 해석

이런 이유로 근본주의는 성경 본문을 성령께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기록처럼 다루려고 하
며, 하느님 말씀이 다양한 시대에 속한 언어와 표현으로 형성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반면 그리스도교는 말들 안
에서 그 말씀을, 이러한 다수성과 인간 역사의 현실을 통하여
당신 신비를 전파하시는 로고스를 알아봅니다. 근본주의 접근
에 대한 진정한 응답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해
석”입니다.

이 해석은 “교회의 전통 안에서 고대로부터 이루어져 온 것으
로서, 개별 신자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구원하
시는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 전통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바로 성경
전통이 역사적 증거로서 지니는 가치 때문에 이 해석은 오늘
날 신자의 삶을 위한 성경의 살아 있는 의미를 재발견하려고
합니다.” 영감 받은 본문의 인간적 증개와 그 문학 유형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목자, 신학자, 주석자들 사이의 대화

45). 진정한 신앙의 해석학은 교회의 사목 활동의 영역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주교 대의
원 회의의 교부들 자신이 이 점에서 목자들과 주석자들과 신
학자들 사이의 더 규칙적인 만남을 권고하였습니다. 주교회의
들이 “하느님 말씀의 봉사에서 친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만남을 촉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더 잘
행하도록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상, 사목 활동
의 범위 안에 자리한다는 것은 학자들에게도, 거룩한 본문을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인간들을 향하시는 통교라는 그 본질
에 맞게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
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성경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 교도권의 감독을 받으
며 서로 합심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의 봉사자들 이 성경의 양식을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양
식은 정신을 비추어 주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
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

<◆계속>

비우고 파견되어 평화심기

우리가 신앙인이 된 목적은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지만,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성사인 성체성사를 파견이라는 뜻을 가진 '미사(Missa)'라고 부릅니다. 파견이란 선교사가 되어 떠나면 땅으로 떠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매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파견된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욕심 많은 사람들, 상처입은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평화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비우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화를 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만 생길 것입니다. 비우는 작업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으뜸 제자로서 자만심이 있었고, 칼을 휘두를 만큼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용서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고, 뼈저린 통회를 거치고서야 겸손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 파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그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자존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나서 그 자리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비우는 작업은 물질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가난하면 대학도 가기 힘들고,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도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돈 주머니를

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으며, 재물욕심은 평화를 깨는 제1의 적임이 분명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물질적인 평화보다 영적인 평화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나그네이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하느님의 평화를 선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재물과 학력과 외모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말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농민의 삶은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과정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농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잘 벌어서 훗날 멋있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은 참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며 목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도 지위와 재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고찬근 투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 베네딕도 16세 교황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틸리안	신덕레 데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박진수 스태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7월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2012~2013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백삼위 장학회 정기회의

- 일시 : 오늘 주일(15일) 오후 2시
- 장소 : 신부님 집무실
- 참석대상 : 장학회 운영위원(개별통지)
- 안건 : 첫 장학금 수혜자 선발
- 문의 : 이재정 사도요한 ☎(562)403-7345

◆ 주일학교 "Praise Night"(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 일시 : 7월20일(금) 오후 7시 성당
- 참석대상 : 남가주 각성당 샌디에고 고등부 신앙대회(7월 27일~29일)참가자 및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과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시시오.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배론 청년회 7월 스케줄

- 청년회원 모집 : 20~30대 미혼 남·여
- 성경공부(장세기) : 7월3일부터 12주간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장소 : 1층 회의실
- Movie Night : 14일 청년미사(토요특전) 후, 강당
* '울지마 톤즈' 상영
* 회비 : \$7(저녁식사 및 음료 제공합니다.)
- 불령시합 및 저녁식사 : 21일(토) 미사후 신부님과 함께
- 기도회 : 28일 성체조배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당 청년회장 ☎(310)508-2123

◆ 어린이 복사단 모집

- 봉사일시 : 주중 수,목요일 미사(오후 7시30분)
- 자격 : 첫영성체한 초등부 남녀 어린이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백삼위 서예반 회원 모집

- 서예에 관심있는 분, 또한 붓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 지도 : 한국예총미주서예가협회 회장 박태홍(일호)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본당 꾸리아 단장 새로 선출

레지오 마리아가 지난 주일(8일) 꾸리아 회합에서 최기남 야고보 님의 신임 사목회장 임직에 따라 그 후임으로 남성철 베네딕도 형제를 새 단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후보 광고에 협찬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후보에 게재되는 교우업소를 애용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15일(주일) : 하버/카슨 1,2반
(터키랩 Turkey Wrap \$3)
- 7월22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구자운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민석	김병학	김옥보	김옥찬	김 욱	김원호
	김정희	나경흠	박광자	박현주	배태입	석순영
	성나호	소성덕	송기철	신경훈	엄영희	오신재
	우영희	유영균	윤식구	이귀분	이미경	이상석
	이숙화	이인두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정혜영	조소영	최미열	최상만	최이원	이크리스
합계 : \$3,865						
미사헌금 : \$2,765						

성전헌금	강태홍	구자운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민석	김병학	김옥보	김 욱	김원호	나경철
	박광자	박현주	석순영	성낙호	소성덕	송기철
	신경훈	유영균	이귀분	이상석	이숙화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정혜영	최미열	최상만
	최이원	이크리스				
	합계 : \$2,715.15					
감사헌금 : 신순철						
리사이클링 : \$95.15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독서자 모임 및 연습

- 일시 : 7월22일 낮11시 미사후 성전
- 대상 : 주일학교 모든 독서자 학생(전원참석 요망)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전례담당교사 ☎(310)780-8895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대회(샌디에고 스텐벤빌)

- 일시 : 7월27일~ 29일(금토일)
- 집합시간 : 7월27일(금) 오전 11시30분까지 성당과킹랏
- 출발 : 정오(12시 정시출발)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 리더 ☎(310)709-3343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간 : 주일 학생미사후(등록금: 새학기등록자 무료)
-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컴퓨터 기증받습니다 :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다 더 원활한 한국학교 수업과 행정업무를 위해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토) 오후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반모임(Torrance Park) 7/21(토) 낮 12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7/18(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27 7/14(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형삼 요셉 375-7397 7/14(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7/22(주일) 낮미사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최기남 야고보 378-4183 7/17(화) 오후 7시 반미사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7/19(목) 오후 8시30분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7/14(토) 오후 6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유회(P.V. Park) 7/15(주일) 오전 10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쥘마 818-640-3656	김금자 데레사 800-3939 7/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P.V. 구역 합동 반모임 7/14(토) 오전 10시 라이언파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P.V. 구역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P.V. 구역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P.V. 구역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회기 첫 사목회	오후 1시
-----------	-------

남가주 소식

장애인 후원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7월21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LA 올림픽+아라파호, 1137 Arapahoe St. LA 90006)
- 메뉴 : 갈비백반 + 냉국(1인당 \$10)
- 문의 :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213)387-3301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2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엑스포드 호텔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성 이냐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치

☞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사후피임약처럼 논란이 되는 사회문제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치관이란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이 여타의 가치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치관이라고 하면 가치에 대한 관점, 곧 가치를 보는 지점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의 문제는 결국 보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잘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것들이 저곳에서 보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 바라보는 자리에 따라 어떤 것들에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그보다 낮은 가치를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고, 보는 자리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스도교 가치관은 그리스도교라는 자리에서, 곧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그자리에서 보면 편리와 이윤, 힘과 능력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 인간과 평화에 최고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폭대기를 향해 끊임없이 오르고자 애쓰는수직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순례를 함께 걷고자 하는 수평적 가치관이 그리스도교 가치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슈들을 그렇게 수평적 가치관으로 보는 노력, 그것이 그리스도교 가치관을 지닌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화만나면 주체할 수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되고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저의 분노를 다스릴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학을 전공한 어느 신부님은 권투 연습을 하는 샌드백을 하나 사서 분노가 치밀면 그것을 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화를 즉각적으로 발산하면 당분간은 화가 풀리는 것 같지만,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풀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저의 처방전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호경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라, 거대한 파도 같이 다가오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거창한 성경 공부나, 대단한 교리 지식이나 신학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바치는 짧고 단순한 화살기도가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성호경을 긋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치밀

어 오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곧 분노가 되어 버립니다. 그 순간 성호경과 같은 짧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의식을 차리고, 나와 나의 분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 하느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화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이제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기도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깨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같은 죄의 씨앗이 마음에 싹을 틔울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바친 나의 짧은 기도가 복수의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 고해성사를 본지 너무 오래 되었는데, 막상 보려니 부끄러워 고해소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제12장에는 주정뱅이의 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도착한 그 별에는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술만 마시고 있는 그에게 “왜 술을 마시요?”라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잊기 위해서 마신다.”

다시,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라고 물으니,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지”라고 대답합니다. “뭐가 부끄러운가요?” 라고 물으니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라고 대답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술로 잊는다는 그의 답이 바보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듯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 후,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자신도 보지 않으려 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이유는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를 위로하고, 변화를 바라는 나를 믿어주고, 나아가 지지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변화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교구 임호성당 보좌 신부